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박 전 대통령과 소크라테스는 천지차이인가

위대한 철학자가 한 사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악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금으로부터 2,416년 전에 독당근 액기스로 만든 독배를 들고 죽어간 소크라테스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판결에 의해 목숨을 거둔 인간사 최고의 철인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399년 5월 그리스 아테네 종교법정에서 회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죄명은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아테네 신들에게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3명의 원고가 고소한 죄명이 그렇다.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는 명언을 남기며 거절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던 소크라테스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긍정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라 인식했다

때문에 만약 그 조건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때문에 비록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 악법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법이 폐지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때문에 만약 제자들의 의도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탈옥을 했다면 그동안 설파해왔던 자신의 논리가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 누구도 버리고 쉽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소크라테스의 강단진 논리에 순응한 그 당시의 현실인식이 그를

오늘날까지도 살아있게 하고 있다.

철학을, 역사를, 정치를, 학문을 하는 사람치고 그를 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비록 2,416년 전에 사망했지만 결코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 믿는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의 업보라 할 수 있다. 갖가지 자료들을 통해 죄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정치 보복', '재판부

에 믿음이 없다'는 등 말을 뱉어 내면서.

유예이탈화법도 여전하다. 장삼이사만도 못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것도 아니다. 평민들을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단도 모두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다는 의미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법제도를 부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이 부정한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그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박 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은 법대로 풀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은 수 부리지 말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밟길 바란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국민들도 집렸다. 더 이상 국민들의 기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민초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희한한 처사인가. 추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의 명쾌함을 전적으로 본받을 수는 없더라도 그런 시늉이라도 해 봤으면 한다. 제발 말이다. 자신이 저지른 행태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면 인정 많은 국민들이 가만있겠는가.

社說

낙시배 안전불감증 단죄해야

'위험한 바다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항·정원초과·번 바다 낚시·야간낚시·구명동의미착용 등 낚시어선과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275건이던 불법행위가 2016년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불법행위 중에는 낚시객을 정원에 비해 많이 태우거나 집을 규정에 비해 많이 싣는 행위인 '과적·과승'이 154건이나 포함돼 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 번 바다까지 나가서 낚시를 하거나 야간에 낚시를 하는 하는 등의 영업구역·시간 위반 행위도 325건 적발됐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운행한 사례(음주운항)도 27건 적발됐다. 미신고 영업 행위(137건)도 많았다.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많은 해역은 통영(320건), 군산(258건), 목포(258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을 보면 낚시어선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7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77건)과 2014년(86건)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7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5년(206건)과 2016년(208건)에는 연간 2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7년의 경우도 8월까지 이미 160건을 기록했다.

낚시어선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기관고장·추진기장 등으로 인한 사고가 552건(74.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총동(73건), 좌초(59건), 침몰(37건), 화재(15건), 전복(1건) 등이 있었다. 낚시어선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현장 홍보 등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務 茲 稼 穡

務 茲 稼 穡

뜻: 때맞춰 심고 힘써 일하며 많은 수확을 거둔다.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김미숙 광주지방보훈청보훈과장



청렴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예의

중국에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다. 이 대나무는 땅속에서 5년 동안 자라는데 겉으로 자라지 않는다고 불과 거름 주는 것을 게을리 하면 땅속에서 말라 죽어버린다.

하지만 이 대나무 싹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는데 6주 만에 30m 가까이 자란다고 한다.

이처럼 땅속에서 긴 시간 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없었다면 이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나무의 놀라운 성장처럼 대한

민국의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 원동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발전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정해진 결론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최선을 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믿

음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경쟁의 기본 조건인 '청렴'이 중요한 것이다.

국제부패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43위에서 2015년 37위로 여섯 계단 올랐지만, 2016년 52위로 떨어져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OECD 가입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

는 현실이다.

국제부패성기구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0.5%,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제 우리는 청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에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않지만 물과 거름 주는 것을 게을리 하면 죽어버리는 대나무처럼 청렴한 세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리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청렴한 대한민국이 아닐까.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